

# 불교대학을 찾아서

## ① 조계사 불교대학

‘심심(心心) 지혜(知慧) 도생(度生)’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조계사불교대학’. 198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800여명의 졸업생과 300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89년 조계사불교대학의 초창기는 1년제 ‘여성불교양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2차례 특강을 여는 정도였다. 92년 교과과정을 현재의 2년 과정 체제로 바꾸면서 ‘조계사불교대학’이라고 개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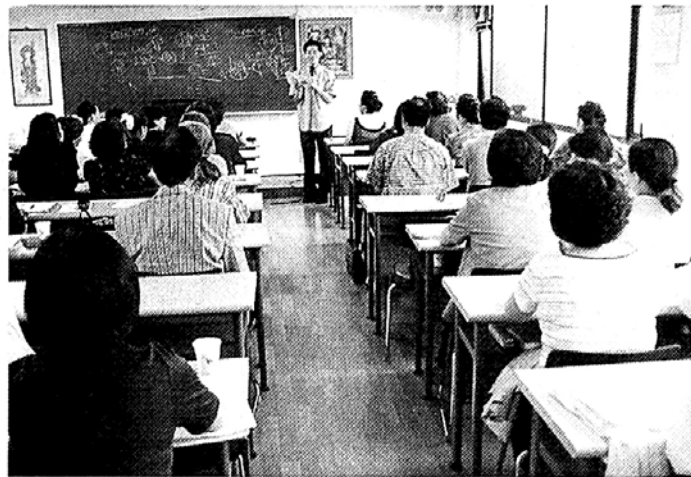
‘조계사불교대학’을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엄격하게 표준화된 신도교육 프로그램에 있다. 3개월마다 수강생을 엄선하여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화된 불교사

공부까지 체계적으로 교과 과정을 진행한다.

처음 개설 당시에는 초심자를 위한 ‘불교기초교육과정’을 1년에 2기수씩 주·야간반으로 나누어 불교의 기본교육을 시

## 89년 설립...졸업생 800·포교사 300명 배출 교훈 심심·지혜·度生...92년부터 2년제로 교육표준화...‘기본교리’마쳐야 입학자격

켰으나 99년부터는 불교공부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열의를 반영해 3개월마다 70명



◇초어를 날씨에도 아랑곳없고 조계사 불교대학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다.

정원으로 모집하고 있다. 주간반, 야간반, 토요일반으로 구성된 불교기초교육과정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발간한 <불교입문>을 기본교재로 불자예절, 불교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발우공양법, 불교 수행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문자를 통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의 장도 마련돼 있다. 교과과정 중 1박 2일 삼보사찰 수련회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삼보사찰 수련회는 1천 6백년 한국불교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불법을 만난 인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남을 위한 보시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전문교육 과정인 조계사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전문교육과정에는 무진장승님,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스님, 동국대 강사 묘수스님을 비롯해, 박경준, 정병삼, 김상영 교수 등 다양한 강사진을 초빙해 불교개론, 근본불교, 불교사, 경전입문, 불교사회복지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올 3월부터 조계사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포교사를 대상으로 불교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찰에서 활동할 불교지도자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조계사 포교계장 김은수(31)씨는 “종단 내 명실상부한 최고 불교대학을 지향하는 조계사불교대학은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불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성우전자 정몽훈회장 불교대 재학 일주문 불사참여...부인도 함께 수학

조계사불교대학에는 정몽훈(43·사진)회장이 다니고 있다. 정 회장은 2001년 3월 직접 조계사를 찾아와 불교 기본교육과정에 등록을 하면서 일주문 불사 참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부인 박 씨에게 불교

공부를 권유해 함께 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다. 유명인사의 가족이면서도 전혀 티를 내지 않는 소박한 성격 때문에 주위 도반들도 정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 조계사 이세용 교무계장은 “회사를 경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만들어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불자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불교교양대학은 총 260여개. 1973년 대한불교대학회가 처음으로 대한불교대학을 설립한 이후로 85

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 그리고 사찰별로 신도교육을 위한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하는 등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해외교포와 직장인들의 수강이 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학과도 장래문화학, 불교한문학, 비교종교학, 사회복지학 등을 신설하여 기존의 교리위주 교과과정을 탈피, 전문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불교교양대학들의 교과과정 특성화로 집약할 수 있다. 일반 대학들도 학교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과로 특성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졸업생들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바람직

# 전국 불교교양대학 총 260곳

## 해외교포·직장인 수강 증가 추세 장래·비교종교학 등 학과 다양화 교리위주 탈피 사회교육으로 영역 확대

한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기회 제공과 신행생활의 심화 등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무불선원대학원, 달마불교대 등은 ‘인터넷 불교대학’ 분야로 특성화시키는가 하면, 서울 정도불교대학의 경우, ‘자원봉사’ 분야로, 서울 불교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양성에, 서울 삼화불교대학은 중국남경중의약

대와 연계한 ‘중국어학준비과’ 등으로 특성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조계종포교원은 전국 42곳의 불교대학을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신도교육 강화에 종단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불교대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조계사불교대학 등 3곳, 인천·경기에 불교사불교대학 등 3곳, 강원엔 원주불교대학 등

4곳, 충북에 광명불교대학 등 2곳, 대전·충남에 백제불교문화대학 등 3곳, 부산에 부산불교교육대학 등 3곳, 경남에 경남불교대학 등 6곳, 대구·경북에 대구불교대학 등 6곳, 전북에 화엄불교대학 등 3곳, 전남·광주에 광주불교대학 등 6곳, 제주에 제주불교대학, 등 2곳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주요 종단별로는 태고종의 등방불교대학, 천태종의 서울·부산 금강불교대학, 진각종의 밀교문화대학 등이 있다. 또한 거사불교 및 지역불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교양대학으로는 서울의 동산불교대학, 능인선원불교대학 등을 손꼽을 수 있고, 경남에는 통도사박물관대학, 전북에는 전북불교대학, 대구에는 영남불교대학, 범양사불교대학 등이, 대전에는 보현불교대학 등을 들 수 있다.

김철우기자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수술비 마련못해 애태우는 유쌍자 할머니

## “병원선 하루가 급하다는데...”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이야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무슨 재주로 그 돈을 구하겠어?” 유쌍자(66) 할머니는 벌써 6개월째 아픈 팔을 파스와 약으로 다스리며 고통을 견디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른쪽 팔이 굽어질 듯 아프면서 팔을 들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좀 더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특수검사를 해보야 한다고 했지만 돈 걱정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원이나 나온 적이 있고 보니 걱정이 더 앞선다. 유 할머니는 수술에 앞서 당뇨조절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10년 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갑상선 진단을 받으면서 당뇨, 천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때 얻은 병으로 지금까지 할머니는 약 떨어질 날이 없다. 주섬주섬 챙기는 약 종류만도 갑상선, 골다공증, 천식, 고혈압, 당뇨 등 셀 수조차 없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있는 셈이다. 가족이나 작은 병을 다 차지할 듯 펼쳐진 약을 보며 할머니는 다시 심란해진다.

## 팔 혈관 염증 당장 수술 안하면 위험 보조금 월12만원...박스 주워 생계



◇약봉지를 펼쳐놓고 있는 유쌍자 할머니를 언니 유처자 할머니가 인스스롭게 바라보고 있다.

급하다는 병원 의 말에도 할머니는 벌써 6개월째 꼬박 꼬박 약을 타러 가고 있을 뿐이다. 병원에서는 갈 때마다 수술을 안하면 팔 혈관에 생긴 염증으로 위험하다고 겁나는 얘기만 되풀이한다.

5년 전 미끄러져 다친 허리를 2년 동안 약으로 버티다 결국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적이 있는 할머니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물렁뼈 대신 쇠를 허리에 박아 넣는 수술을 하고서야 겨우 거동을 하게 된 할머니로서는 팔 수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일에도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허리 수술 때도 50만원이라 했던 당초 치료비가 합병증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200만

1종 생활보호대상자인 유 할머니의 정부보조금은 월 12만원. 그 돈으로 월세 6만원을 내고 전기세, 물세 등을 내고 나면 반찬 마련조차 어렵다. 호적이 잘못되어 나이가 실제보다 어려 보조금도 작는데 다 대중교통비도 모두 내야 한다. 그래서 차마나 벌어서라도 1년 전부터 시작했던 박스 모으는 일이 할머니에게는 무리가 되었나 보다. ‘쌍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할머니는 쌍둥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먹을 것을 제때

로 못 먹고 자랐다. 함께 태어났던 쌍둥이가 아들이어서 더욱 그랬다. 초등학생 키만큼 작은 키의 할머니가 박스를 모으고 가져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으리라. 여기 저기 다니며 박스를 모아 봤자 겨우 몇 천원 벌이.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된 요즘, 유 할머니는 이렇다 할 수 없게 되던 어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음에 밤잠을 설친다. 언니 유처자(72) 할머니는 스스로도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젊어서부터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팔 수술을 못해서 잘못될까 걱정”이라며 동생을 바로 보는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 전화번호:051-628-7076 후원계좌번호:부산은행 083-02-034710-2 부산=천미희기자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심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쳐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보이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초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 부처님 말씀 · 깨침의 소리 불교성전

5년간의 준비끝에 새롭게 출간된 불교성전!  
오랫동안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고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불자나 초심자도 『불교성전』을 펼치는 순간 환희와 신심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무한 경쟁시대! — 佛法을 바로 알아야 불교를 지킵니다.

중요 차례

|                |                   |                  |
|----------------|-------------------|------------------|
| ○ 제 1 부 경전의 말씀 | 제 8 장 포 교 품       | 천수경 · 예불문 · 빈야심경 |
| 제 1 장 서 품      | 제 9 장 구 경 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 제 2 장 교리강령품    | ○ 제 2 부 간추린 불교    | 원각경보안보살장         |
| 제 3 장 불 타 품    | 제 1 편 부 처 념       | 화엄경보현행원품         |
| 제 4 장 신 앙 품    | 제 2 편 가 르 침       | 부모은중경            |
| 제 5 장 업 연 품    | 제 3 편 수 도         | 법성계 · 무상계        |
| 제 6 장 자 치 품    | 제 4 편 교 단         | 기도발원문            |
| 제 7 장 대 치 품    | ○ 제 3 부 독송경 · 발원문 | 천도법어 · 찬불가       |

4×6판 최고급 호화금장 양장제본  
70g 고급 미색 모조 600페이지 값 18,000원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 및 단체주문시 특별인쇄 공급합니다.  
계좌번호: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佛法院** (02)739-8745~6